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떠날 때는 뒤 돌아보고 또 돌아보자

소적 시간적 인생이 어느 곳에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며 사는가의 삶이다.

인생의 삶은 연속되는 장소 시간 업무와의 만남과 떠남 속에서 산다. 새들은 앉았다 떠날 때는 앉았던 곳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정리를 잘한 후 떠나며 떠난 후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다. 머물고 있던 곳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남기고 빠진 것이 없이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가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챙기는 것이 있다. 열쇠, 돈과 증명서 등 지갑, 휴대전화기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챙길 것을 빠뜨렸을 때는 되돌아와 챙기고 가야 한다. 우리가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를 탔을 때 종착지에 가면 안내방송으로 앉은 자리에 빠진 것이 없나 잘 살펴보고 떠나란 방송을 한다. 무엇인가 빠뜨려 놓고 떠난 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살려면 시간상으로는 과거를, 장소적으로는 현재 머무는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떠나야 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뒤 돌아보고 빠진 것이 없어야 하며 직장을 옮길 때는 인적 물적 주변 정리를 잘하고 나 때 문에 생긴 쓰레기는 치우고 내 것은 챙겨 떠나야 한다. 한번 머물렀

던 곳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하며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충고다.

앞으로 나갈 때는 앞을 가까이도 보지만, 멀리 봐야 하는 것을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주행할 때 주의 사항으로 가르치고 있다. 멀리 보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보고 운전해야 한다. 날로 변하는 국제사회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가는 우리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멀리 보며 살아야 한다.

현재는 가진 자이지만, 먼 훗날을 보면 못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어렵고 안 되는 일도 멀리 보면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일을 시작할 때는 멀리 끝을 보며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꾸준히 성실히 실천하며 가야 한다. 인생을 멀리 보면 끝점은 너나 나나 죽음이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인생을 멀리 보려면 나보다 연상인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나이의 나를 예측해 보면서 오늘의 시점에서 준비하고 앞을 멀리 보는 삶이 돼야 한다. 인생 나그네는 머물렀던 곳에서 떠날 때는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치우고 빠진 것이 있나 챙기는데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며, 앞은 멀리 보고 뒤돌아보지 말며 힘차게 전진하자.

인생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으나 가진 자가 되려는 부단한 욕구는 성공으로 욕구를 충족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지만, 그 소유가 종말에는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다 간다.

남기고 간 것이 유산이며 그 유산은 물적 재산과 지식능력 정보의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의 유산이 멀리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며 대책을 세워 정리해야 한다. 물적 유산인 돈과 재산이 내 인생의 종말에 누구의 소유가 되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미리 유서로서 상속자를 정해야 한다.

무형의 재산인 지식정보기능은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종말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죽기 전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 전해주어야 한다. 인생을 멀리 보면 끝점은 너나 죽음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보람 있는 삶이란 많이 가진 자가 되는 즐거움에서 살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보람 느끼며 살고, 인생의 삶을 마친 후 내세의 준비까지도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다.

인생 나그네는 머물렀던 곳에서 떠날 때는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치우고 빠진 것이 있나 챙기는 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며, 앞은 멀리 보고 뒤돌아보지 말며 힘차게 전진하자.

독자기고

‘화재’, 방심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 선근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요즘은 겨울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낮지만 TV와 신문 등 방송매체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 주택, 공장, 고시원 등 화재가 발생,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대피할 겨를도 없이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곤 한다.

특히 화재 원인 대부분이 ‘부주의’나 방화 등으로 비취볼 때 평소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전기·가스 및 화기 취급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의되는 사람이 없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다.

가정에서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전기코드는 뽑아 놓았는지, 기타 화기 취급 장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장 등 직장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 소방조직을 편성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재 위험 지역으로 판단될 때는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흡연 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퇴근할 때는 화재위험 요소가 없는지 쓰레기 통까지 살펴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을 할 때 라이터 등을 휴대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어떤 소각 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최근에 방화로 인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방화의 원인분석을 보면, 가정불화가 가장 많고 부부 또는 친구 등과의 싸움, 비판 자살, 주벽, 정신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주요 방화 장소는 차량, 주택, 음식점, 점포, 작업장 순이다. 차량 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이나 도로상에 주차하지 말고 빈집 또는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잠금장치 후 외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환경조성이 방화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은 로마신화의 신인 ‘아누스’ 처럼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평소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산적인 모습이지만 그 이용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까지도 앗아간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 봄철에는 훈훈한 봄비람을 기대한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